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시설 만족도, 불안,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우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영화*, 조성제¹
¹동방대학원대학교 교육학과

Effect of the Facility Satisfaction, Anxiety, Self-esteem, Stress,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in Care Facilities on Their Life Satisfaction

Young-Haw Sa^{*}, Sung-je Cho¹

¹Department of Education at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시설 만족도, 불안, 자아 존중감, 스트레스, 우울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K시에 소재한 요양시설 입소노인 2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 상관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실증분석은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하여, 첫째, 입소노인의 성별과 연령, 교육정도, 배우자 유무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생활만족도는 서비스 만족도, 의료서비스 만족도, 시설환경 만족도, 자아존중감과 상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서비스 만족도, 시설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자아존중감과 서비스 만족도, 시설환경 만족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w the facility satisfaction, anxiety, self-esteem, stress,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in care facilities affect their life satisfaction. The objects of the study were 271 elderly in 8 care facilities located in Seoul and associated areas. The results of a questionnaire, which was carried out from the 10th March to 25th August 2013, were analyzed. For data analysis, a t-test, one-way varianc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proof analysis on the SPSSWIN 18.0 program was conducted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5%. The analysis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life satisfaction depending on age, sex, education level, and marital status. Second, life satisfaction was related to service satisfaction, medical service satisfaction, facility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self-esteem. Third, life satisfaction was higher if self-esteem, service satisfaction and facility environment satisfaction were higher, and if the family relationship stress was lower. Overall, self-esteem, service satisfaction, and facility environment satisfaction of the admitted elderly were positive influential factors of life satisfaction

Key Words : Anxiety, Care facility, Facility Satisfaction, Self-esteem, Stres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노인성 증증질환자가

증가추세이다. Statistics Korea[1]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2.2%로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

*Corresponding Author : Young-Haw Sa(Dongbang Graduate Univ.)

Tel: +82-10-2523-4397 email: sud2450@naver.com

Received September 4, 2014

Revised (1st September 30, 2014, 2nd October 31, 2014, 3rd November 13, 2014, 4th November

21, 2014, 5th December 1, 2014)

Accepted December 11, 2014

기 위하여 정부는 2008년 7월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였다.

노인장기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정원수는 2012년도 167,884명에서 2013년도 174,592명으로 0.96%가 증가하였다[1].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은 입소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요양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것은 입소노인의 삶의 질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소노인의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노인장기 요양시설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가진 노인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시설 입소노인들은 가족의 보호를 떠나 생활하게 되므로 시설만족 정도에 따라 생활만족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시설 입소노인은 가정과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통해 생활만족을 얻고자한다. 시설에 입소하여 궁경적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은 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에 의해 생활만족 및 행복감의 주관적 안녕감이 증가하였다[2].

그러나 시설에 입소하여 부정적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은 생활만족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났다. 이러한 거부감은 시설입소에 대한 수치심, 낮은 시설생활, 자식과의 관계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유발되었다. 그 결과 폭음, 울음, 자살시도의 형태로 나타났다[3].

노인장기 요양시설은 가정에서 케어하기 힘든 질환자를 위한 편안한 서비스시설이 요구된다. 따라서 장기요양시설 운영자는 노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입소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대해 2013년도 평가한 결과, 노인성 질환자들이 생활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질이 2년 전 평가 때 보다 하락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소규모 입소시설의 노인성 질환자들은 삶에 직접영향을 주는 편의시설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4].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입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입소한 노인 가족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시설의 운영, 입소한 노인들이 인식하는 서비스 만족도와 생활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2-5]. 물론 이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노인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이 임종까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요양시설 입소자들이 인식하는 불안, 우울, 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시설의 현황과 생활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노인요양시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분류하고, 이들이 요양시설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장기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시설만족도, 불안,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우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요양원 입소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어떠한가?
- 둘째, 요양원 입소노인의 시설 만족도,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우울이 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셋째, 요양원 입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2013년 3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서울과 중부권 지역의 요양시설 8개소의 입소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본크기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검정력 분석 프로그램 G*Power 3.1을 이용하였으며, 5%유의수준과 80% 검정력, 독립변수 5개 및 효과크기는 중간지수 0.15로 지정하여 최소 표본 수는 123명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는 총 337부를 실시하였다. 그 중에서 무응답이거나 불성실한 응답 66부를 제거하고, 271부의 응답결과를 분석데이터로 활용하였다.

2.2 연구 설계

조사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21개 문항, 효에 대한 인식 설문 5개 문항, 시설이용만족도 19개 문항, **스트레스 20개 문항, 우울 15개 문항, 자아존중감 10개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설문지는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시설이용만족도, 일상생활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을 구성하였다.

2.3.1 인구통계학적 특성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조사도구는 지역사회건강조사[12]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으며, 성별, 연령, 종교유무, 학력, 배우자 유무의 5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이 중에서 성별(남, 여), 종교유무(있다, 없다), 배우자 유무(있다, 없다)는 이분형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연령과 교육정도는 주관식으로 응답케 한 후, 범주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를 각각 도출하였다.

2.3.2 시설이용만족도

시설이용만족도는 김기영[13], 구분용[14], 이제남[15], 송호영[16] 등의 문항들을 참조하여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련된 문항들을 시설이용서비스, 의료재활서비스, 시설환경의 세 가지 차원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문항의 수는 19문항이며, 측정방법은 ‘매우만족’(1점), ‘만족’(2점), ‘보통’(3점), ‘불만족’(4점), ‘매우 불만족’(5점)을 부여하였다.

2.3.3 스트레스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이영자·김태현[17]이 개발한 것으로 4개요인 20문항이며, 측정방법은 ‘전혀 그렇지 아니다’(1점), ‘그렇지 아니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를 부여하였다.

2.3.4 우울

노인의 우울 측정도구는 Yesavage et al.[18]의 노인우울척도(GDS)를 기백석[19]이 번안하여 한국판으로 개정한 것으로 진위형으로 응답하도록 한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방법은 ‘전혀 그렇지 아니다’(1점), ‘그렇지 아니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를 부여하였다.

2.3.5 자아존중감

노인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20]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를 전병재[24]가 번안한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방법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를 부여하였다.

2.3.6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인 신뢰성은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으로 0.6이상이면 비교적 신뢰성이 높다고 한다[24]. 본 연구는 전체적으로 0.7이상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Facilities Satisfaction, Anxiety, Self Esteem, Stress, Depression, Reliability of life satisfaction

division	Sub-factors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Facilities Satisfaction	Facilities Satisfaction	7	.921
	Medical Rehabilitation Service Satisfaction	5	.871
	Facilities Satisfaction Environment	7	.910
	Facilities Satisfaction	19	.960
	Anxiety	10	.924
	Self Esteem	10	.719
Stress	Family Stress	9	.832
	Economic issues stressed	5	.793
	Residential environmental stress	3	.708
	Stress	20	.724
	Depression	15	.792
	Life Satisfaction	20	.788

2.3.7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의 다중범위 검정(Scheffe's multiple range test)을 통하여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검정하였다. 셋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성별은 ‘남자’가 24.4%, ‘여자’가 75.6%이었으며, 연령은 ‘80세 미만’이 64.9%, ‘80세 이상’이 35.1%이었다. 종교가 있는 응답자는 65.4%이었고, 종교가 없는 응답자는 34.6%이었으며, 교육정도는 ‘무학’ 45.4%, ‘초등학교 졸업’ 29.8%, ‘중학교 졸업’ 15.1%, ‘고등학교 졸업’ 9.8% 순이었다.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는 32.2%,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67.8%로 조사되었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Division		Frequency(N)	Percentage(%)
Sex	Man	50	24.4
	Women	155	75.6
Age	Less than 80 years	133	64.9
	More than 80 years	72	35.1
Religion	In	134	65.4
	No	71	34.6
Education	Under graduates	93	45.4
	Elementary school	61	29.8
	Middle School	31	15.1
	High School	20	9.8
Marital status	In	66	32.2
	No	139	67.8
Total		205	100.0

3.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성별과 연령, 교육정도, 배우자 유무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나, 종교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성별이 남자의 평균은 2.96, 여자의 평균은 2.87로 남자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p<.05$), 연령은 80세 미만의 평균은 2.96, 80세 이상의 평균은 2.76으로 80세 미만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았다 ($p<.001$). 교육정도는 ‘중학교 졸업 이상’(M=3.00), ‘무학’(M=2.87), ‘초등학교 졸업’(M=2.84) 순으로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고($p<.05$),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평균은 2.98,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평균은 2.85로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았다($p<.01$).

[Table 3]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Division		N	Mean	SD	t/F	p
Sex	Man	50	2.96	.20	2.086*	.039
	Women	155	2.87	.36		
Age	Less than 80 years	133	2.96	.28	4.335***	.000
	More than 80 years	72	2.76	.38		
Religion	In	134	2.89	.24	.155	.877
	No	71	2.88	.47		
Education	Under graduates	93	2.87 ab	.41	3.632*	.028
	Elementary school	61	2.84 b	.26		
	Middle school	51	3.00 a	.23		
Marital status	In	66	2.98	.25	2.701**	.008
	No	139	2.85	.36		

* $p<.05$, ** $p<.01$, *** $p<.001$, Scheffe's test : a>b

3.3 시설 만족도, 불안,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우울과 생활만족도와의 상관관계

시설 만족도, 불안,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우울과 생활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생활만족도는 시설 만족도의 시설이용 서비스 만족도 ($r=.451, p<.001$), 의료재활 서비스 만족도($r=.355, p<.001$), 시설환경 만족도($r=.430, p<.001$), 자아존중감($r=.549, p<.001$)과 정의 상관이 있었다.

[Table 4] Facilities Satisfaction, Anxiety, Self Esteem, Stress, Depression and Correlation between life

category	facility satisfaction			anxiety	self-worth	stress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utility	medical care	environment			family	economic	health			dwelling
facility use service	1										
facility medical satisfaction on service	.830**	1									
facility environment	.816**	.739***	1								
anxiety	-.446**	-.266***	-.365**	1							
self-worth	.153*	.172*	.169*	-.233***	1						
family relationship	-.171*	-.179*	-.243**	.101	-.092	1					
economic problem	-.130	-.065	-.062	.229**	-.102	.328**	1				
stress health problem	-.073	-.069	-.055	-.187**	.095	-.361**	-.362***	1			
living environment	-.205*	-.196**	-.228**	.314***	-.191**	.102	.398***	-.338***	1		
depression	-.201*	-.255***	-.257**	.097	-.101	.105	.239**	-.095	.144*	1	
life satisfaction	.451**	.355***	.430**	-.421***	.549***	-.141*	-.288***	.137	-.367***	-.264*	1

* $p<.05$, ** $p<.01$, *** $p<.001$

불안($r=-.421, p<.001$), 스트레스의 가족관계 스트레스($r=-.141, p<.05$), 경제문제 스트레스($r=-.288, p<.001$), 주거환경 스트레스($r=-.367, p<.001$), 우울($r=-.264, p<.001$)과는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이 있었으나, 건강문제 스트레스와의 상관관은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3.4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2=0.582$ 로 전체 변동의 58.2%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수 간 다중 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IF : variable inflation factor)와 허용치(tolerance)를 살펴본 것으로, 일반적으로 분산팽창계수가 10이상이거나 허용치가 0.1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본 분석에서 변수들의 VIF값은 모두 10 이하였고, 허용치는 0.1보다 크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형에 대한 분산 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으며 ($p<.001$), 자아존중감 ($\beta=.474, p<.001$), 시설이용 서비스 만족도 ($\beta=.277, p<.05$), 가족관계 스트레스 ($\beta=-.250, p<.001$), 시설환경 만족도 ($\beta=.215, p<.05$) 순으로 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아존중감과 시설이용 서비스 만족도, 시설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시설이용만족도와 일상생활 스트레스 수준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결과의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은 80세 미만이 80세 이상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은 무학력자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가 존재 할 경우 생활만족도가 더 높았다. 따라서 가족지지가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Lee[3]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는 배우자 지지와 자녀 지지의 두 요인만이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우자, 자녀 및 친구지지가 증가할수록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았다는[14,23]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장명숙[26]의 자녀지지정도가 클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가 안하는 경우보다,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안하는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지지, 봉사활동여부, 여가활동여부의 순으로 영향력이 작아졌다는 것과 부분적으로 차이점이 있었다.

둘째, 생활만족도는 시설 만족도, 시설이용 서비스 만족도, 의료재활 서비스 만족도, 시설환경 만족도, 자아존중감과 정의상관이 있었다. 따라서 요양시설의 양적향상과 서비스 질적 향상 정도에 따라 입소자의 만족도가 좌우됨을 알 수 있다. Lee[5]는 노인요양시설들은 과도한 경쟁과 건강보험공단의 규제 속에서 효율적인 운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입소자에게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해결해주는 것에 급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입소자의 가족이나 친구,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삶의 욕구에는 무관심하며, 오히

[Table 5] Factors for affecting on life satisfaction

category	dependent variable : life satisfaction						
	B	standard error	β	t	p VIF		
(constant)	2.782	.368		7.564***	.000		
sex	-.034	.044	-.044	-.776	.438	1.455	
age	-.005	.003	-.103	-1.792	.075	1.501	
religion	.013	.036	.018	.359	.720	1.183	
education standard	.022	.019	.066	1.184	.238	1.385	
marriage stance	-.019	.037	-.027	-.519	.605	1.234	
facility satisfaction	facility use service	.138	.054	.277	2.564*	.011	5.295
	medical rehabilitation service	-.085	.047	-.172	-1.787	.076	4.216
	facility environment	.101	.045	.215	2.269*	.024	4.074
	anxiety	-.030	.029	-.063	-1.039	.300	1.681
self-worth	.450	.048	.474	9.336***	.000	1.167	
stress	family relationship stress	-.174	.040	-.250	-4.314***	.000	1.524
	economic problem stress	-.004	.033	-.007	-.119	.906	1.645
	health problem stress	-.023	.034	-.039	-.681	.497	1.499
	living environment stress	-.040	.032	-.075	-1.233	.219	1.693
depression	-.141	.077	-.103	-1.819	.070	1.465	
$R^2 = .582, \text{adj } R^2 = .549, F = 17.564***$							

* $p<.05$, *** $p<.001$

려 입소자 가족의 격리와 소외를 조장하고 있다. 향후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가 입소노인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전문화, 다양화됨으로써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과 일치하다. Kim[23]은 요양시설에서 물리적인 시설보다는 이용자가 느끼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부분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일치하다.

셋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 존중감, 시설이용 서비스 만족도, 가족관계 스트레스, 시설환경 만족도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존중감과 시설이용 서비스 만족도, 시설환경 만족도가 높았다.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노년기의 특성으로 나타난 스트레스와 우울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저하는 그들로 하여금 본인들의 욕구와는 반대로 사회로부터 퇴각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자아평가에 위기를 초래하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쉽다.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적응행동과 삶에 대한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생을 의미 있고 중요하게 느낀다고 하였다[24,25]. 이 의미는 사회적지지 요인이 가족지지 및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23,26]과 일치하다.

5. 결론 및 제언

결론적으로 생활만족도는 시설 만족도, 시설이용 서비스 만족도, 의료재활 서비스 만족도, 시설환경 만족도, 자아존중감과 정의상관이 있었다. 따라서 요양시설의 양적 향상과 서비스 질적 향상 정도에 따라 입소자의 만족도가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시설이용 서비스 만족도, 시설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의료서비스 만족도, 시설환경 만족도, 자아존중감과 정의상관이 나타났다. 향후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따른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자아 존중감과 서비스 만족도, 시설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서비스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Press Releases, 2013 Aged Welfare Facilities Statistics, www.kostat.go.kr, 2014.
- [2] H. S. Im, "Analysis of Causes Affecting The subjective wellbeing of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The Service of Long-Term Care Facilities", Journal of Welfare the Aged, Vol.54, pp.237-261, 2011.
- [3] G. E. Lee, "A Grounded theory approach to the adjustment process of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The control of relucta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2, pp.624-632, 2002.
- [4] National Health Insurance, <http://www.longtermcare.or.kr>, 2014.
- [5] J. N. Lee, M. W. Kim, "Study on the life satisfaction and influence factors for Nursing Facilities ", Journal of Korean Policy Research, Vol.11, No.2, pp.245-263, 2002.
- [6] M. H. Kim, Y. K. Kim, "The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of the Elderly Patients in Geriatric hospital", Korean Journal Oriental Preventive Medical Society, Vol.16, No. 3, pp.27-35,2012.
- [7] N. Krause. Life Stress, Social Support, ad Self-esteem in an Elderly Population. Psychology and Aging, 2, pp. 349-356, 1987.
DOI: <http://dx.doi.org/10.1037/0882-7974.2.4.349>
- [8]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9] W. 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Depressi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Institution Residents. Master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05.
- [10] Y. H. Kim & K. S.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17, pp. 157-189, 2002.
- [11] S. G. Oh, J. Cho, Y. H. Kim, J. M. Choi, "Influence of Depression on Psychological Death Anxiety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2, No. 2, 2012.
- [12] Community Health Survey, 2010 healthy happy positive community healthy investigation, http://chs.cdc.go.kr/03_contents/contents_04.jsp, 2010.
- [13] K. Y. Kim.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in Nusing Homes. Master Dissertation. Yonsei

- University, 2000.
- [14] B. Y. Koo.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Elderly Care Facilities. Master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2005.
- [15] J. N. Lee. In Search of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the Inmate's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Care Facilities: Focusing on Gyeonggi Province. Ph.D.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2011.
- [16] H. Y. Song.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Care Facilities. Master Dissertation. Kwandong University, 2011.
- [17] Y. J. Lee & T. H. Kim. A Study on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Stress of the Elderly who lives alone.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19(3), pp. 79-93, 1999.
- [18] J. A. Yesavage, T. L. Brink, T. L. Rose, O. Lum, V. Huang, M. B. Adey, & V. O. Leirer.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 A preliminary report.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17, pp. 37-49, 1983.
DOI: [http://dx.doi.org/10.1016/0022-3956\(82\)90033-4](http://dx.doi.org/10.1016/0022-3956(82)90033-4)
- [19] B. S. Ki. A Preliminary Study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 Version.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5(2), pp. 298-307, 1996.
- [20]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21] B. J. Jon.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Collections of Yonsei Journals, 11(1), pp. 107-130, 1974.
- [22] E. Y. Seo, C. S. Lee, J.M. Won,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Evaluation Criteria for Elderly Care Facilities",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Analysts Association, pp. 131-147, Vol. 18, No. 4 ,2012.
- [23] M. S. Kim, J. W. Ko,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An Integrative Approach", Korea Digital Contents Society, pp. 246-258, Vol. 13, No. 6 ,2013.
- [24] N. Krause, "Life Stress, Social Support, ad Self-esteem in an Elderly Population", Psychology and Aging, Vol.2, pp.349-356, 1987.
DOI: <http://dx.doi.org/10.1037/0882-7974.2.4.349>
- [25]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26] M. S. Chang, K. S. Park,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for the Aged: From the Ecosystem Perspectiv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2, No.2, pp.232-266, 2012.
DOI: <http://dx.doi.org/10.15709/hswr.2012.32.2.232>

사영화(Young-Hoa Sa)

[정회원]



- 2012년 2월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석사)
- 2012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노인복지, 심리상담 사회복지

조성제(Sung-Je Cho)

[정회원]



- 1977년 2월 : 홍익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이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 교육방법, 정보보안, 사회복지 조사